

“지역-학교 공동교육과정 등 종합적 접근 필요”

해양전문가 협업 초·중·고교재 개발
중·고교 ‘해양 프로젝트’ 과정 운영
권역별 해양문화·교육시설 구축
“전남 섬·해양 관심 제고 노력”

14일 전남대학교와 전남일보가 공동 주최한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심포지엄’에서는 초·중·고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교육 실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제도·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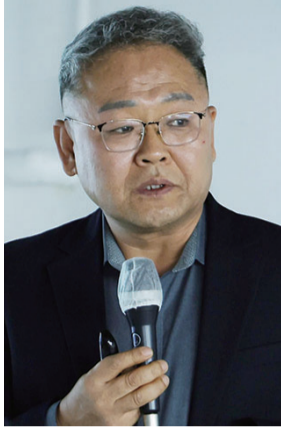
이날 ‘초등학교 해양교육의 실증과 확대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문병찬 광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의 내용은 해양에 대한 사실중심의 단편적 지식에 한정돼 있어 지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싱가포르 교과서를 예로 들며 “싱가포르는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지나친 고기잡이에 따른 바다 생태계 파괴 및 파도 에너지를 활용한 조력발전 등 에너지적, 물리적 측면까지도 깊게 다루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표면적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분야와 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연구체를 구성해 교재를 개발, 교사연수를 통한 동기 및 인식 제고를 통해 해양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고등학교 해양교육의 실증과 확대 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철 담양고등학교 교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성취평가제 진행, 교과목 변화 및 대입제도 개편 등 변화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지역-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해양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목포해양대학교 등 지역 대학교·중·고등학교 연계 프로젝트 및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 효과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관련 체계가 구축된다면 해양 인재 양성 및 연계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도 노릴 수 있다”



문병찬 광주교대 교수



김승철 담양고 교장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14일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열려 문병찬 광주교대 교수가 ‘초등학교 해양교육의 실증과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고 말했다.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은 “대학교 해양교육의 실증과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해수부는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실천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포대가 2024년 글로벌30 대학 선정을 통해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을 천명한 만큼 광주·전남과 지역 대학이 나서 지역-대학 간 상생 모델 발굴을 위한 해양교육 활성화 및 권역별 해양문화 및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효율적인 해양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김동주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해양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가 국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만큼 해양교육에 있어 자원과 환경, 생태계, 레저,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빙기창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교수는 “2002년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통합적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워킹 그룹’을 통한 무인도서의 인문·사회학적 가치 발견 및 변화상 파악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 만큼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준호 서일초등학교 수석교사는 “주제 중심, 또는 STEAM 교육과정으로 해양

교육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교육은 △체험학습 △교내·외 대회 참여 △독도교육 연계 △기후환경교육 연계 △디지털 해양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재 국립군산대학교 전문연구위원은 “전남의 섬과 해양을 이용한 발전 전략은 지역과 산업체,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지역-대학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협업의 시작이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사회해양교육과 학교해양교육의 실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석 전남도 섬정책팀장은 “전남의 섬과 해양을 이용한 다양한 현장 교육과 더불어 해양수산 관련 포럼 및 박람회, 토론회 참여를 통해 섬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해양교육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전남 해양자원 활용 독창적 관광콘텐츠 발굴”

도 ‘신해양 관광시대 선도’ 포럼

전남도는 14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신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 전남의 비전’을 주제로 전남 관광개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영록 도지사, 김태균 도의회 의장,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단 등 관광 분야 민·관·학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조연설,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포럼에선 전남의 해양 자원과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전남만의 독창적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연설에선 송재호 국회의원 자문위원장이 해양관광의 세계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최신 해양관광 동향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심원섭 목포대학교 교수와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지역 간 관광 협력 성공사례와 추진전략’, ‘해양관광 레저 트렌드 변화와 전남 관광콘텐츠 개발 방향’ 주제발표를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종합토론에선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전남 해양관광지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전남도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수립과 포용적 관광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전남을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미디어아트쇼 라이트웨이브 ▶▶▶

LIGHT WAVE

2024.11.29. - 12.3.

경기도 수원시 광고호수공원 신비한 물너미

경기-흥 조선팝 콘서트 11.30.(토) 17시~19시 • 악단광칠 ADG7, 소은피쉬, 예결밴드 •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미디어 콘텐츠 전시 11.29.(금)~12.03.(목) 15시~20시 • 공공이 인터랙티브 체험 • 미디어아트 전시	경기예술인 오픈스테이지 • 11.29.(금) 18시~19시 <빛>나는 재즈 나이트 • 12.01.(일) 15시~16시 <흥>폭발 밴드 스테이 • 12.02.(월) 15시~16시 <흥>겨운 퍼포먼스 쇼 • 12.03.(목) 18시~19시 <물결>속 클래식 하모니
---	--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아트센터
GAC Gyeonggi Arts Center